

벽안의 불심 사로잡은 '토론 법회'

미국 캘리포니아 샌루이스오비스포(San Luis Obispo) 카운티에서 9명의 티베트 스님들의 토론·문화 법회를 진행, 벽안의 불심을 다잡았다.

〈뉴 타임즈(New Times)〉지는 “인도 남부 고망(Gomang) 사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게세 롱상 테젠(Geshe Lobsang Tseten) 스님 등 9명의 티베트 스님들이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2일 ‘티베트 불교식 토론’을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뉴 타임즈〉지에 따르면 이날 토론의 주제는 ‘정의’와 ‘평화’. 한 스님이 이에 대한 ‘공격적’인 문제 제기에 이어 다른 스님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나머지 스님들과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로 스님들의 토론에 화답했다.

“티베트 불교계에서 토론이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할 방향을 가늠하는 방편”이라고 전제한 테젠 스님은 “함께 온 스님들은 인도 남부 고망(Gomang) 사원에서 오랫동안 경전을 공부한 학승”이라며 “티베트 불교계의 전통을 벽안의 불자들에게 선보이고, 한편으로 토론의 여정을 좇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배우는 단초가 되길 희망하며 이번 토론 법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 타임즈〉지는 이날 토론을 지켜본 Anna Weltner(Anna Weltner) 씨의 말을 인용, “스님들이 다른 주제는 우리들이 실생



9명의 티베트 스님들의 '티베트 불교식 토론'을 하고 있다.

고망(Gomang) 사원의 스님들, 티베트 불교 '법거랑' 선보여 샌루이스오비스포 불자들, "모순을 떨친, 배움의 과정"

활에서도 돌아켜보지 않는 것들”이라며 “토론장의 박수와 환호가 스님들의 대화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신선했다”고 전했다.

또한 〈뉴 타임즈〉지는 라레나 감보아(Lareina Gamboa) 씨의 말을 인용, “주제 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답변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지 않으면서 논박을 이끌어가는 티베트 스님들에

게서 배울 것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티베트 스님들은 경전 암송을 교학의 원칙으로 삼는데, 경전을 잘 암송한다고 해서 존경 받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테젠 스님은 “토론장에서 스스로 익힌 지식을 변증법적 방법론에 근거해 풀어내면서 논박할 수 있어야 암송,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며 “암송 이후 수행의 과정에서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언술’로 변화되고, 그 힘으로 모든 앞의 벽을 넘어서는 게 궁극의 지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장에서는 부처님의 보궁을 상상하며 색색의 모래의 선과 면으로 보궁을 짓는 ‘만다라 시현’과 스님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선보인 ‘춤추는 야크’ 등의 공연도 마련됐다.

〈뉴 타임즈〉지는 “이날 만다라 시현은 ‘만다라가 단순한 모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에미 에스맨(Amy Asman) 씨의 말을 인용,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온전한 만다라를 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비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스님들의 설명이 청중들엔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들이 선보인 ‘춤추는 야크(Dancing yaks)’도 벽안의 불자들의 이목을 잡았다. 〈뉴 타임즈〉지는 테젠 스님의 말을 인용,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가족인 야크의 고마움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모든 생물의 존엄성을 일깨우게 하는 게 ‘춤추는 야크’ 무대의 목적”이라고 전하며, “티베트 스님들의 빼어난 기예가 돋보인 공연이었다”고 평가했다.

고망 사원 스님들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를 비롯해 오는 19일까지 캘리포니아 도시를 순회하며 토론과 예술이 공존하는 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애리조나로 이동한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 과학적으로 해석한 책 조만간 완성

달라이라마 감수, 19개국 언어로 출판 예정



이번 책을 집필한 스님들이 달라이 라마와 만난 직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티베트 스님들이 달라이 라마의 감수를 받아 집필한 책 〈불교과학〉(가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티베트 포스트(The Tibet Post)지가 보도했다.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졌다. 조만간 영어와 19개국의 언어로 발간될 예정이다.

앞의 목적, 마음이 대상에 관여하는 법 등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책은 고대 불교 경전을 토대로 마음과 명상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부처 말씀을 토대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식이다. 타임지와 유수 매체들에 보도된 연구결과가 근거 자료로 쓰였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다람살라에서 만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스님들은 책의 마무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의 완성 소식에 달라이 라마는 크게

기뻐하며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인도에 와서야 과학을 제대로 접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찾는 중요한 작업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줄곧 “종교를 맹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과 불교의 연결 작업을 지속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티베트어는 물론 영어, 힌디,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로 번역 출간된다. 책 발간 작업에는 티베트의 드레퓀(Drepung), 간덴(Garden), 세라(Sera) 등 3대 사원 스님 10명이 참여했으며, 70명의 지원자 중 특별히 학식있는 스님들로 선별돼 지난 몇 년간 작업에 매진해왔다.

책은 불교도뿐 아니라 정신 작용에 관심 있어 하는 과학자, 연구자,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인도 불교는 '성장 중'

9·12월 인도서 대규모 불교행사 열려

“부처님 탄생지 인도의 불교 교세를 보여줄 대규모 행사가 9월과 12월 두 차례 마련된다”고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행사 중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제9회 국제 대장경 독송 대회(International Tipitaka Chanting Ceremony)’가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을 잡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지는 대회 주최 측인 ‘국제 대장경 독송 대회 위원회’의 말을 인용, “부다가야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라오스,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3000여 명의 스님과 2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인도 나그푸르(Nagpur)에서는 암베카 박사(Dr. Ambedkar) 추모·순례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150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모·순례법회에는 6백여 명의 스님들의 팔리어 경전 독송과 고승 초청 법회



인도 부다가야에서 매년 9월 열리는 ‘국제 대장경 독송 대회(International Tipitaka Chanting Ceremony)’에는 평균 5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부다가야에서 열린 ‘국제 대장경 독송 대회’ 모습.

등으로 진행된다. 간디와 동시대에 살았던 암베카 박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불가촉천민의 권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인물이다.

〈허핑턴 포스트〉지는 “인도에서 매년 대규모 불교 행사가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인도 승단이 매년 성장하고 있고, 이와 함께 불자 층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도첸 린포체, 퀸즈랜드 불심 잡다

‘걱정을 줄이는 비결’ 주제… 호주 대중법회 봉행

행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걱정하는 마음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호주 퀸즈랜드의 매체인 〈김파이 타임즈(Gympie Times)〉가 2일 김파이의 밀웰(Millwell)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도첸 린포체(Dzogchen Rinpoche) 순회 법회를 보도하며, 이 같은 ‘행복의 조건’을 전해, 주목된다.

〈김파이 타임즈〉에 따르면 “걱정을 줄이는 비결(the secret to worrying less)”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법회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삶을 초조하게 보내는 일이 많다”고 지적한 도첸 린포체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인과(因果)를 명상하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을 걱정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며 “인과를 명상할 때, 우리는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고, 그 힘은 불안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파이 불교계의 초청으로 마련된 ‘도



호주에서 순회법회를 가진 도첸 린포체

첸 린포체 법회’는 오는 14일까지 퀸즈랜드 곳곳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티베트 불교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도첸 린포체는 인도 남부에 세운 도첸 사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280개의 사원을 조성했다.

현재 세계 순회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도첸 린포체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호주를 방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25년 전 좌필임망한 미라 스님

태국 코사무이 섬 왓쿠라남 사원에 25년 전 일찍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투앙 포 땡(Luang Pho Daeng) 스님. 당시 79세였던 스님이 명상에 든 채 열반하자 제자들이 유리관을 만들어 안치했다. 따로 방부제를 사용하거나 약품처리를 하지는 않고 스스로 미라화 되었으며, 아직까지 내부 장기 조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선글라스는 함몰된 눈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흑사라도 스님을 보고 무서워할지도 모르는 아이들과 관광객을 위해 씌워진 것이라고 한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